

양돈장의 월동준비 다시 한 번 점검하자



곽 춘 옥 대표이사
(주)건지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긴장된 위기의식을 느낀 IMF의 한파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과거에는 '부도'라는 말이 희귀하고 불경스런 단어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쉽게 사용되는 일반명사가 되어버렸고 또한 우리들 자신도 매일 같이 접하는 지상보도를 통하여 어떤 업체가 부도가 났다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재빨리 길들여져 버렸다.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부도불감증'에 걸려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자신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화살이 바로 곧 자신에게로 차츰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대만에 갔을때 느낀 일인데 작년도에 돼지구제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축산업 붕괴라는 참담한 그들의 현실을 보며 그것이 꼭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대단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화살이 곧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형태는 다를지라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가까이 왔나 보다.

더구나 정신없이 나라가 들썩거리며 구조조정을 외치고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소비자물가의 급등과 천정부지로 높아진 고유가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눈 앞에 다가오는 겨울은 벌써부터 시리기만 하다. 따라서 원가에 큰 변수로 작용될 난방 등 월동준비를 스스럼 없이 점검해보며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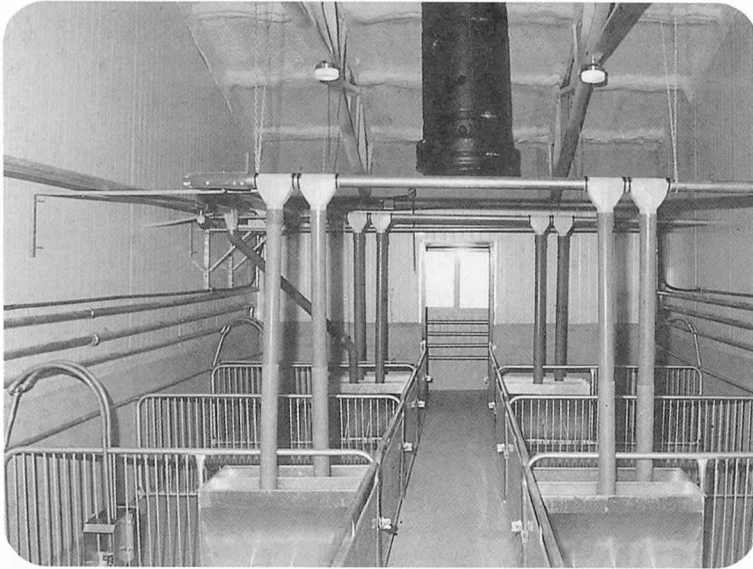
스한 내년 봄을 기약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해 본다.

1. 우리의 현실

최근 수년간 정부에서 풀어준 각종 자금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양돈장의 현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시기적으로 필연적이었기에 껍이나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다른 한편에서는 양돈업에 대한 질적인 개선보다는 양적인 팽창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즉 그 자금을 양심적으로 자기의 업에 충실하기 위하여 요모조모 알뜰하게 생각하고 투자한 농장은 정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지만 다른 용도로 유용했거나 비효율적으로 투자한 농장은 빗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한 투자에 대한 성적표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결과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부나마 진솔하게 살펴보자.

(1) 농장의 실태

에당초부터 자생력이 없는 개인이나 업체에 정부자금을 검증없이 방출한 결과는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외기온에 영향을 덜 받고 일조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환기시스템을 갖춘 무창돈사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서 대단히 유익한 시스템이다.

- 1) 소비시장을 예측하지 않은 생산요소의 양적인 팽창만을 초래하였고
- 2) 당초에 기대했던 투자대비 실적인 생산성 향상은 유발되지 않았으며
- 3) 기존과 신규, 대농장과 소농장, 대업체와 소업체의 인위적인 힘겨루기를 조장한 결과가 되었고
- 4) 농장측과 계열업체 간에 상호 기대심리를 유발하는 동상이몽을 초래하였으며
- 5)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식육검사에서 조차 썰파제의 검출로 불합격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 6) 그러한 총체적인 산물로 자생력이 없는 농장은 현재 빗더미에 앉아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할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비단 오늘에야 최초로 발생된 일인가? 아니다. 잘 알다시피 양돈경기는 거의 주기적으로 호불황을 거듭하면서 가난한 자를 부자로도 만들었고 부자를 망하게도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기뻐할 일이나 부자가 망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거저 부

자되고 거저 망하는 일이 있거나 할 법 한가! 많은 요인이 있

겠지만 생각되는 몇 가지를 요약한다면,

- 1) 경기예측에 대한 판단 부족
- 2) 여유자금 부족
- 3) 축사의 부실
- 4) 종축의 형질저하
- 5) 사양관리 부실

등 여러 요인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월동준비를 부실하게 한 농장일수록 남들이 기침할 때 심한 폐렴에 걸리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때 더더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축사의 문제점과 난방과 결부된 환기의 중요성을 재점검하여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가난한 자 부자되는 길이요, 부자가 망하지 않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아서 시정조치해 나가야 하겠다.

(2) 축사

예로부터 생활의 3요소를 의식주(衣食住)라고 했다. 아마도 과거의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집이 무척이니 소중했던가 보다. 요즘에 와서 못 입어서 얼어죽고,

못먹어서 굶어죽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니까.

그러나 인간사에는 의식주가 예사로운 일이 아닐지 몰라도 돼지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요소이자 주인님의 흥망을 좌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농장주 나라가 많다는 것은 더 큰 현실적인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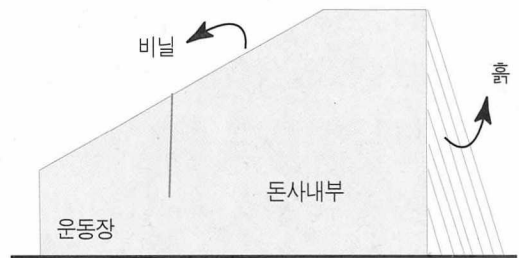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달라지고 있음에도 본인들의 집은 각종 단열재와 질 좋은 난방기구로 중무장을 하면서도 돼지에게는 대단히 궁색한 것이 현실이다. 가축이기에 더울때나 추울때나 4계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따라서 난방을 하는 것이나 단열재를 쓰는 것은 마치 사치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다. 또한 벌써 몇십년을 그렇게 키워왔는데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돼지를 키우면서 그 녀석들이 돈을 많이 벌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철저히 하리만치 놀부심보에 젖어 있다. 그러나 흥부네도 박씨 하나, 놀부네도 그 박씨 하나 떨어뜨리는 듯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순진무구한 돼지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 박씨를 까는 순간 어떤이는 부자되고 어떤이는 망하는데 어찌하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부러뜨려진 제비다리를 쳐다보기만 하면서 부자되기를 바라는가. 그러한 이가 현대판 놀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각설하고 긴 말이 필요없다. 내가 사는 집만큼 돈사를 짓고 가꾸어만 준다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렇다고 우리집 현관에 대리석을 깔았듯이 돈사에 대리석을 깔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한마디로 4계절을 돈공들도 느낀다고 생각하고 내가 옷을 갈아 입고 이불을 갈아 덮듯이 상황변화에 예민하게 적응만 해주면 흥부집에 가져갈 박씨를 놀부집에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어찌 공을 들이지 않고 박씨타령만 한다는 말인가.

추울때 보온을 시켜 주면서 돼지들이 최고의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면 용케도

〈그림1〉 중국의 양돈장 월동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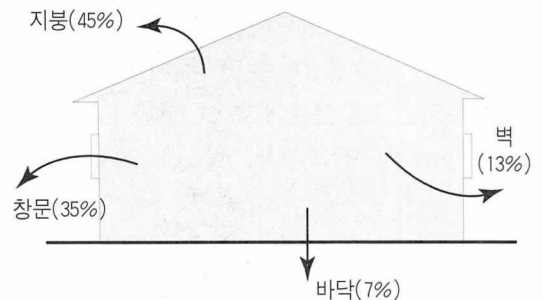
그놈은 흥부네 박씨를 놀부맘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올지 모른다.

우리보다 한참 늦은 중국의 돈사에서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즉 동북지역은 워낙 겨울이 춥고 북풍이 차거운지라 (그림1)처럼 납작은 비닐로 막아 햇빛을 투과시켜 보온을 유도하였고 반대로 북쪽은 벽 뒤편으로 흡을 비스듬히 쌓아 북풍도 막으면서 외부의 냉기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실제 그러한 결과 별도의 난방장치가 없음에도 돈사내의 온도는 외기온에 비하여 대단히 양호하였고 환기 또한 환풍기가 전혀 없음에도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자기네들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한 예는 가로수를 보면서 실감할 수 있었다. 즉 사람 키만한 가로수 한 그루마다에 북풍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막이를 만들어 놓았다. 하물며 돈사에 월동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그렇다고 숨 쉴 틈도 없이 마구잡이로 때려막자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환기상

〈그림2〉 축사의 열손실도



태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기온에 영향을 덜 받고 일조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환기시스템을 갖춘 무창돈사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서 대단히 유익한 시스템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즉, 외기온에 영향을 받는 건축물의 열손실도(그림2)를 고려하여 건축소재나 단열재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겠고 특히 건축 당시의 틈새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돈사의 근간인 건축 자체가 불량해서야 여타의 것이 완비되었다 해도 그것은 일과성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무장인 만큼 환기시스템의 설비 또한 필수요소이며 이때 설계의 중요성과 설비는 어느 설비에 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점을 맞으려 시도했던 결과가 빵점이 되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3) 환기

기본적으로 환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추울 때는 위에서 밑으로' 라고.

즉 추울때는 외부에서 유입된 찬공기가 돈사 내부의 상층부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섞여져서 아래로 내려와 돼지에게 공급되고(그림3) 아울러 유해한 공기는 최대한 돼지의 머리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밑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열량의 손실을 적게하면서 돼지의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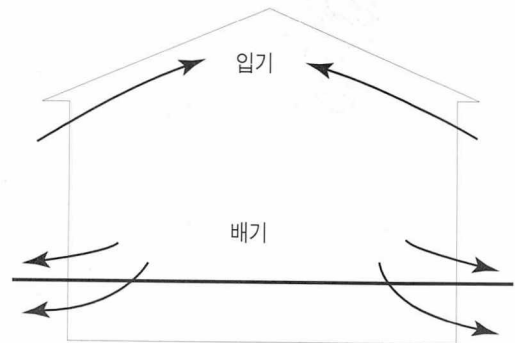
따라서 기존돈사라도 (그림4)처럼 조금만 수리하면 완전한 환기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침니(굴뚝)식으로 내려온 'B'로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 돈사의 최상층에 머물러 있는 더운 공기와 섞여서 밑으로 내려오되 배기팬이 꺼졌을 때에는 'A'의 높이를 반드시 'B' 보다 높게 만들어 돈사 내부의 온도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따라서 용마루에 뚫려 있는 환기구는 배기구가 아니라 입기구가 되는 셈이며 배기구는 돈사 바닥 밑이나 측면 아래벽에 설치해야 한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겨울철 환기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는 설비는 삼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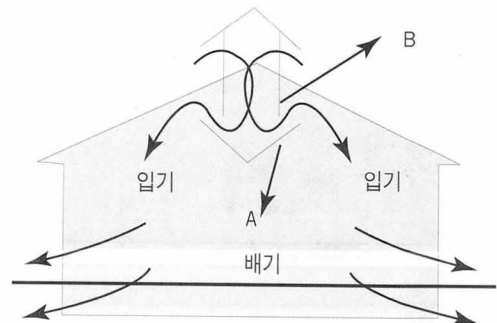
부득불 위로 배기를 하고자 한다면 침니 부분이 돼지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내려오도록 배기팬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반드시 유해가스가 돼지를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일 뿐이다.

아무튼 아무리 잘 먹고 숨을 못 쉬면 살 수 없듯이 최고급의 사료에 광천수를 마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산속에서 도를 닦는 스님이 고기를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남들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먹기에 청명한 머리를 유지하고 깊은 공부를 하면서도 체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만을 보아도 신선한 공기의 보급 즉 환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적절한 환기설비는 효율개선에서 뿐만이 아닌 죽음을 삶

〈그림3〉 겨울철 환기방식



〈그림4〉 기존돈사의 입기구



으로 바꾸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여겨진다.

2. 결론

의식의 전환점을 가져보자.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달라보이듯 의식의 안경을 끼어도 세상은 달라보인다. 옆집에서 시행하고 난 뒤에 내가 따라하면 2등 밖에 없다. 2등이란 3등보다 앞서 있지만 1등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3등으로 전락하기가 더 쉽다. 때문에 2등이라는 안위속에 자기를 버리지 말고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세상이란 참 묘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한다. 진리도 변하는 만큼 자기계발에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 산업 자체도 망한다. 축산물이 국민의 먹거리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축산물은 소비자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요 그 결과는 곧바로 외국 축산물에 짓눌려 축산업 자체가 산화되어 직업없는 거지가 되고 만다.

요즈음에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외치면서 국내 축산물을 먹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축산물시장이 개방될 때만 해도 소비자나 축산업자 모두가 애국을 부르짖으며 수입축산물을 배척하고 '신토불이'라는 유행가까지 불렀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없고 그 노래 또한 잊혀진지 오래다. 참으로 잊어버리고 좋아하고 유행에 민감한 것이 현세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산 축산물을 먹는 사람이 희귀 동물로 여겨지는 세상이 오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마음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인간은 얼마만큼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복제인간이 아니니까. **養豚**



팩스 있으십니까?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